

## 2002년 영국 노동부문의 주요 변화와 2003년 전망

정 경 훈

(워릭대학 경영대 연구과정)

### ■ 2002년 영국경제와 주요 노동부문 변화

OECD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영국 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 지표로 보아 1.5%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지난해 영국의 GDP성장률은 EU국가 평균인 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낮은 이자율과 높은 부의 축적으로 뒷받침된 국민의 안정적인 된 가계 소비와 서비스부문의 신장세가 이러한 경제적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성장 수치는 1997년 이후 최근 5년간 영국의 평균 성장률인 2.8%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와 함께 영국의 경제성장도 다소 둔화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당초 억제선인 2.3%를 넘어선 2.6%를 기록하여 정부가 물가 억제선을 불가피하게 재조정하는 등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가의 불안요인은 2002년 한해 동안만 25%가 상승된 주택가격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된다.<sup>2)</sup>

무역수지를 통해본 영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2002년도 11월을 기준으로 적자금액이 187억 파운드(약 36조원)에 이

1) 이 성장률은 잠정 추계치이며 자세한 내용은 OECD 자료 참고 ([www.oecd.org/xls/M00037000/M00037556.xls](http://www.oecd.org/xls/M00037000/M00037556.xls).)

2) 이 물가상승률은 잠정 추계치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국 통계청 자료 참고 ([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19](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19))

르고 있어 2001년도 적자 금액인 223억 파운드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sup>3)</sup> 영국의 무역수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개선되어 갔으나 1998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여 그 추세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내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임금인상 압박요인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2002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영국의 실업률은 작년 3.3%보다 다소 낮아진 3.2%(2002년 11월 현재) 수준이 될 것이다. 이 지수에 의한 실업률은 1983년 11%까지 올라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1년 10월에는 3%까지 기록했었고<sup>4)</sup> 2002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그간 지속되어온 영국의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실업자까지 포함한 ILO기준의 실업률로 볼 때 영국의 실업률은 5.2%(2002년 1/4분기 기준)<sup>5)</sup>인데 이 수준은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의 평균 실업률인 7.4%<sup>6)</sup>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임금상승률의 경우는 노동생산성 증가률(0.9%)<sup>7)</sup>보다 높은 2.5%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EU국가 평균 수준으로 2001년 상승률(1.1%) 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1980년대 평균 수준(5.4%)이나 1990년대 평균(2.7%)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sup>8)</sup> 영란은행(the Bank of England)이 추정한 낮은 인플레이션과 양립하는 최대 임금상승률이 4.5%임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영국의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우선 영국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1991년과 2001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37.5 → 28.8%)하고 있다. 다만 수적인 측면에서는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다소 증가했으나 2001년에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전반적인 감소세는 여성근로자 보다는 남성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보다는 보다는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서비스부문 보다는 생산직 부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율이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9)</sup>

3) 영국 통계청 자료 (www.statistics.gov.uk/STATBASE/tsdataset.asp?vlnk=375&More=Y)

4) 영국 통계청 자료 (www.statistics.gov.uk/statbase/tsdtimezone.as)

5) 영국 통계청 자료 (www.statistic.gov.uk/StatBase/ssdataset.asp?vlnk=5873&More=Y)

6) OECD 자료 참고 (www.oecd.org/xls/

M00037000/M00037564.xls)

7) OECD 자료 참고 (www.oecd.org/xls/M00037000/M00037564.xls)

8) OECD 자료 참고 (www.oecd.org/xls/M00037000/M00037562.xls)

9) 이자료는 2001년 가을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국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자료 참고(www.dti.gov.uk/er/emar/artic\_01.pdf)

노동조합가입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에 의한 근로손실일수 측면에서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02년 노동쟁의에 의한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11월 현재까지 130,5천일을 기록하고 있어 2001년 수준(525천일)의 두 배를 초과하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노동쟁의가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는 영국의 공공부문의 노동쟁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연초부터 철도노조는 철도부문 공영화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초·중등 교사,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심지어는 소방관들 까지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러한 주요 공공부문의 파업은 향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사건들이었다.

## ■ 2003년 전망

OECD의 자료에 의하면 영국 경제는 2003년도부터 성장세가 회복되어 2004년도에는 2.5%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11)</sup> 영국은 가계의 강력한 수요, 낮은 이자율 등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투자의 회복, 해

외 수요의 증가,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건실한 지출 확대가 뒷받침이 된다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경제적 침체를 보다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영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 회복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 요인들이 있다. 우선 내국인들의 투자가 급감<sup>13)</sup>하고 있고, 외국인의 투자도 감소하고 있어 경제회복에 얼마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사실상 영국민들의 투자 회복의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관적인 태도가 깔려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여론조사<sup>14)</sup>에 따르면 응답자중 47%가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53%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여론조사에서는 또한 건실한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85%의 응답자가 더 이상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2003년도 영국경제 발전의 주요

10) 영국 통계청 자료 참고 (www.statistics.gov.uk/StatBase/expodata/files/1260598191.csv)

11) OECD 자료 참고 (www.oecd.org/xls/M00037000/M00037556.xls)

12) OECD 자료 참고 (www.oecd.org/pdf/M00036000/M00036689.pdf)

13) 2002년 3사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www.statistics.gov.uk/pdfdir/qna1202.pdf 참고)

14) 데일리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와 여론조사기관인 유거브(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 참고 (www.telegraph.co.uk/news/main.jhtml?xml=%2Fnews%2F2002%2F11%2F25%2Fnlom25.xml)

관건은 어떻게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최근의 공공부분의 위기를 정부가 성공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부문에 있어서도 2003년도의 주요한 이슈는 공공부분의 노사관계, 임금인상 문제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분규로 지난해에 이어 2003년 연초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방관 노조의 분규는 2003년 정부와 공공부분 노조간의 협상의 향방과 임금인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도에 25년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소방관의 경우 40%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측에서는 임금 인상요구를 수용할 추가재원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임금인상을 한다면 그 재원마련은 효율과 개혁을 통한 저축을 통해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측은 소방관들의 임금 대폭인상 요구는 그 동안 어렵게 성취한 저물가, 저금리, 저실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정부측의 입장은 임금인상 재원을 공공부분 구조조정을 통하여 마련<sup>15)</sup>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공공부분의 실업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 정부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노조측에 얼마만큼 관철시킬 수 있느냐는 향후 공공부분 분규의 해결에 하나의 좌표가 될 전망이다.

그밖에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1997년 이후 노동시장의 고용이 증진되고 장년층과 청소년층의 장기 실업자가 감소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러한 혜택이 적었던 지역이나 그룹에 정부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중점적인 실업대책을 펼 계획이다.

한편 노동 생산성과 관련하여 지금 영국이 봉착해 있는 문제는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는 유럽식의 규제중심의 노동시장 모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미국식의 비규제 중심의 노동시장모형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미 영국은 유럽의 많은 법령을 수용<sup>16)</sup>해 시행하고 있는 바, 미국식 비규제 중심의 노동시장 모델에 가까웠던 영국으로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과연 노동시장 특히 노동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주요한 노동시장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

15) 데일리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지의 2002년 11월 27일자 보도에 의하면 정부측에서의 소방관노조측의 요구조건 수용 후에는 향후 3년간 소방서에 있는 일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16) 이른바 EU Directives  
\* 각주의 인터넷자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되어 본고에서 인용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